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6.(월) 15:00 (2026. 1. 27.(화) 조간)

출근을 한 시간 늦췄더니, 아침이 달라졌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기업 방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월)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확대를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지원('26.1.~)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소한소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전문 제작 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21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 시차출퇴근제, 주4.5일제, 리모트(워케이션) 근무제, 아이·반려견 동반 출근제 운영('25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국무총리상))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그간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했으나,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 현행 육아휴직자 사전 인수인계기간 2개월에 더해 사후 인수인계기간 1개월 추가 지원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했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원 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최종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 **맞돌봄 확대**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현장방문 개요
[붙임2] 장관 인사말씀
[붙임3]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 · 가정양립지원TF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팀 장	최선용 (044-202-7962)
			사무관	이치훈 (044-202-747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현장방문 개요**

□ 개요

○ 일시 : ‘26. 1. 26.(월), 15:00～15:50

○ 장소 : **주식회사 소소한소통***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8 지식산업센터 915-916호, 상시근로자 21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를 전문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디자인업), **여성 비중 85.7%, 25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총리상), 육아기단축·대체인력지원금 활용(22~25년), **4.5일제, 시차 출퇴근제, 리모트(워케이션)** 근무제, 아이·반려견 **동반 출근제, 10시 출근제(2월 시행)** 등

○ 주요 참석자

▲ **(노동부)** 장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일·가정양립 지원TF 팀장 등

▲ **(사업장)** 대표, 육아지원 활용 노동자(여성 3, 남성 1) 등

□ 행사 순서

※ 행사전체 공개

소요시간(50분)	주요 내용
15:00~15:05 (5분)	■ **영접 및 이동** ① 영접 및 인사 → ② 사무실 직원 인사 → ③ 회의실 이동
15:05~15:45 (40분)	■ **현장 간담회** ○ 단체 기념 촬영 ○ 장관님 인사말씀 ○ 기업 소개(대표) ○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소개(지원국장) ○ 자유토론 ○ 장관님 마무리 말씀
15:45~15:50 (5분)	■ **개별 촬영 및 사인**

붙임2 **장관 인사말씀**

*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노동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등교시키고
마음 편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임금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해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의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대체인력 지원 등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인력 공백이나 운영 부담으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정부 지원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바로 그런 소규모 기업이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일·가정 양립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공백을 보완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안내, 상담, 홍보를 지원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올해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정책방향을 함께 나누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제도명	제도 설명	개선 내용	현행	개선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1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신설	-	<사업주> 월 30만원
 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신설	-	<20~5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30~60만원 *신규채용 시 1인당 80만 원 <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1인당 월 20~50만원 *신규채용 시 1인당 60만원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권역별 주요 산단·테크노파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핵심 타겟으로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 상담 등 정부 지원 연계	신설	-	사업비 9.5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만원 <나머지> 150만원	<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 사용료 등 지원	지원대상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까지 확대